24년의 피부 경험을 담다, DOCTOR’S PICK
피부 고민에 답하는 리프팅 & 여드름 솔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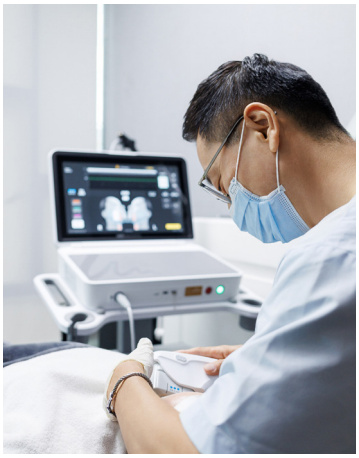
피부 고민에도 세대가 있을까.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30대부터 얼굴선이 신경 쓰이는 중장년층까지 리프팅을 고민하는 연령대는 한층 넓어졌다. 반면 여드름은 청소년의 전유물이 아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반복되는 트러블부터 붉은 자국, 패인 흉터까지 고민의 양상이 다양하다.

올해로 개원 24년을 맞은 천안시청 차앤박피부과가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변화이다. 오랜 시간 다양한 연령과 피부 고민을 진료하며 쌓아온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이정훈·최원복 피부과 전문의에게 요즘 주목할 만한 치료 조합을 물었다.

PICK은 달랐지만 기준은 하나였다. 매순간 피부가 보내는 신호에 주목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시작이라는 점이다.

PICK 1. 이정훈 피부과 전문의의 '모두의 리프팅'

스킨부스터부터 울쎄라피 프라임·3DEEP·온다리프팅까지



이정훈 피부과 전문의의 PICK은 이름 그대로 **'모두의 리프팅'**이다. 피부 노화는 한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피부가 얇고 건조해지면서 잔주름이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턱선이 흐릿해지거나 얼굴의 지방 분포 변화가 고민인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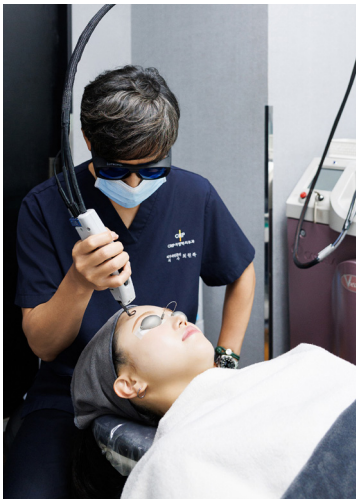
중요한 것은 **'어떤 장비가 좋은가'보다 '지금 내 피부에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찾는 과정**이다.

피부 컨디션과 밀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리투오와 같은 스킨 부스터를, 피부 깊은 층의 리프팅이 필요한 경우 울쎄라피 프라임을 고려할 수 있다. 여기에 피부 상태와 고민 부위에 따라 **3DEEP, 온다리프팅 등 서로 다른 에너지 기반 시술을 선택하거나 조합하는 방식**이다.

이정훈 피부과 전문의는 "같은 연령이라도 피부 두께와 탄력, 지방의 분포, 노화가 진행된 정도는 모두 다르다"며 "20~30대의 초기 탄력 관리부터 중장년층의 복합적인 노화 고민까지 현재의 피부 상태를 기준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PICK 2. 최원복 피부과 전문의의 '여드름은 역시 차앤박'

압출부터 붉은 자국·패인 흉터까지, 단계별로 접근하다



최원복 피부과 전문의의 PICK은 차앤박피부과가 오랫동안 집중해온 분야인 **'여드름'**이다. 여드름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보이는 트러블 하나만 없애는 것이 아니다. 염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붉은 자국이 남고, 반복되는 염증은 패인 흉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치료의 시작은 현재 진행 중인 여드름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기본적인 압출 치료와 쿨젠 진정치료를 통해 피부 상태를 관리하고, 이후 남아 있는 흔적에 따라 치료 방향을 세분화한다. **여드름이 가라앉은 뒤 지속되는 붉은 자국에는 혈관 레이저인 브이빔을, 이미 패인 형태로 남은 흉터에는 큐어젯 등을 활용해 흉터의 형태와 깊이를 고려한 치료를 진행한다. 천안시청점 역시 여드름과 여드름 흉터, 홍조·브이빔 등을 주요 피부 고민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최원복 피부과 전문의는 "여드름은 현재의 염증, 붉은 자국, 패인 흉터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단계에 맞춰 접근하는 것이 불필요한 흔적을 줄이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한다.

결국 답은 '지금 내 피부'에 있다



리프팅과 여드름은 전혀 다른 피부 고민처럼 보인다. 그러나 24년간 천안시청 차앤박피부과가 지켜온 치료의 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다. 나이만으로 리프팅을 결정하지 않고, 여드름이라고 모두 같은 치료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번에 소개한 DOCTOR'S PICK 역시 모든 피부를 위한 하나의 정답은 아니다. 같은 고민이라도 피부의 두께와 탄력, 노화 정도, 염증과 흉터의 단계에 따라 필요한 치료와 조합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4년의 임상 경험이 쌓일수록 기준은 명확해진다. 답은 시술 자체가 아니라 '지금 내 피부'에 있다. 피부에는 요행도, 모두에게 통하는 하나의 정답도 없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피부 고민에 대한 24년 노하우를 담은 피부과 전문의의 답이자 약속이다.**